

# 중기 일자리 선호도 '국민 2명 중 1명'

### 안정성에서 큰 격차 대기업 82.5점 대비 중기는 50.6점으로 31.9점 차이 정부 대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긍정적 이미지 증가 "청년층 취업 확대·취약계층 고용 안정망 역할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제언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 조사」(이하 일자리 호감도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를 5개 분야(▲자아실현 ▲사회적 지위 ▲안정성 ▲성장성 ▲근로조건)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호감도는 52.6점으로 대기업 75.5점 대비 22.9점의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첫 조사 이후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은 안정성이었으며, 대기업 82.5점 대비 중소기업은 50.6점으로 31.9점의 차이가 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용상태를 갖추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46점으로 낮게 나와 많은 국민들이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대기업 73.7점, 중소기업 49.2점으로 24.5점의 인식격차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근로조건의 세부 항목 중, 중소기업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 결과 역시 44.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국민들은 중소기업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증가(52.6%)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30.2%) ▲중

소기업의 자발적 역량 강화(27.2%) ▲국가 경제여도 증가(24.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리후생 격차(43.4%)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거부감(19.3%)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14.5%) 순이었다. 세대가 젊을수록(20대:49.1점/60대이상:56.4점), 여성(55.5점)보다는 남성(49.7점), 학력이 높을수록(고졸이하56.7점/대학원이상 49.6점)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구노력과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

금격차·직주환경 개선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추진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여성·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위주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일자리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연내 서비스 개시가 목표인(가칭)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랜칭은 일자리 정보를 상시·직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달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연구'를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2013년부터 시작한 '우렁이농법' 큰 호응

### 고창 해리농협, 올해 재배면적 894ha까지 확대 "친환경 쌀 생산에 자부심"

고창 해리농협은 2013년 우렁이농법을 실시한 이후 올해 현재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2013년 131논가(381ha) 시작으로 우렁이농법을 도입해 올해 약 345논가(894ha)까지 확대했다. 이는 상하면 지역 벼 총 재배면적 927ha에 96% 가량이 달한다.

상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우렁이농법은 '친환경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가 2013년부터 원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다.

친환경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는 올해 2020년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우렁이 구입비용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첫해 2만4,000평에서 우렁이농업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표상규 씨(40·상하면 장호리)는 "영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효과가 큰데다 참여농가는 안전보장과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고창 해리농협은 차별화된 친환경 쌀 판매 전략으로 우렁이농법 참여 농가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김갑선 조합장은 "쌀 소비부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대처하고자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고품질쌀을 차별화하고 특화해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북전주농협, NH농협생보 연도대상 사무소 부분 대상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이 제32회 NH농협생보 연도대상 사무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농업 보장자산 5천만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해 농업인 삶의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실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협생명 전북총국 이숙 총국장은 "매년 전북에서 연도대상 수상 사무소가 나와 자랑스럽다"며 "올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업인 보장자산 확대에 계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19세기 초반 전통 농법 '친환경 도시 텃밭' 으로 부활

### 농진청,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 제안 '견종법' 현대 도시민 요구에 맞게 재해석한 모델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제안한 농법을 오늘날 도시민 요구에 맞게 재해석한 '한국 전통 농업 모델'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진청은 농촌경제 정책서인 '임원경제지(1827년)'에 밭고랑을 의미하는 '견'과 씨앗을 뜻하는 '종'을 합친 '견종법'을 제안했다. '밭 재배법' 혹은 '골 뿌림법'으로 불리는 '견종법'은 밭을 두둑과 고랑으로 나누고 봄부터 가을에는 두둑에, 농사가 어려운 겨울에는 고랑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즉, 추운 겨울 두둑 흙을 덮어 고랑을 덮어줌으로써 보온 효과를 얻고,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진청이 새로 만든 '한국 전통 농업 모델'은 견종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친환경 도시 텃밭이다. 옛 견종법과 달리 두둑과 고랑에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도록 고안했으며, 특히 기존 도시 텃밭보다 고랑 폭을 2배가량(60~90cm 정도) 넓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겨울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텃밭에 작물을 심어 가꿀 수 있도록 알맞은 식물 조합도 제시했다.

두둑에는 ▲봄·가을에 상추·부추·대파·배추 ▲겨울에 무·갓·시금치 등 채소류와 바질·오레가노·차이브·매리골드·한련

화 등 허브와 화훼작물을 심는다. 고랑에는 ▲봄·가을에 옥수수·메주콩·메밀 ▲겨울에 보리·밀 등 밭작물을 심으면 된다.

또 농진청은 작물을 함께 심었을 때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동반식물'도 소개했다. 이를 텃밭에 적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식물 사이의 생육 촉진과 병해충 예방, 잡초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추·차이브를 함께 심으면 차이브에서 나오는 특정 성분이 상추의 진딧물을 예방한다. 부추·바질의 경우 바질의 리나롤(Linalool) 성분이 부추의 애벌레, 진딧물 등 병해충을 유인하기 때문이다. 결국 식물이 잘 자라는 덕분에 잡초가 뜯어나는 면적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농진청은 국립원에특작과확원 연구용 재배지에 전통 농법을 활용한 도시 텃밭 모형을 9.9㎡(3평) 규모로 조성했다. 이 텃밭 모형을 영상으로 만들어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 등 온라인상에 공개해 도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에특작과확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역사·문화적 의미를 지닌 옛 농법을 널리 알려 도시농업의 다양성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일 디지털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담은 신상품 '1st Link on 카드'를 출시했다. 1st Link on 카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구독경제 및 온라인 결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부문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고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소비자 맞춤형 카드로 구성돼 있다.

##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최대 월 1만원 청구 할인

### 전북은행, 디지털 특화 카드 '1st Link on' 신용카드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일 디지털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담은 신상품 '1st Link on 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출시된 '1st Link on 카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구독경제 및 온라인 결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부문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고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소비자 맞춤형 카드로 구성돼 있다.

다. 1st Link on 카드는 요즘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고객층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와 멜론, 지니, 벅스 뮤직 플레이어 이용 시 월 최대 1만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온라인 간편결제(네에버페이, 쿠팡페이 등),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온라인쇼핑(SSG.COM, 쿠팡, 티몬 등) 5% 청구할인으로 월 최대 7,000원 할인 혜택이 있다.

또한 전북은행은 1st Link on 카드 비대면(온라인)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회비 100% 캐시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들의 소비패턴을 적극 반영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둘러'

### 전북농협, 집합교육 중단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실시 축산 보수교육 미이수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축산신규 등록·허가자 및 가족허가대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산종사자교육이 ASF·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축산관련 종사자(신규허가·등록, 가족허가 대상인, 차량운행 및 보수교육 등 전 과정)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을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가족집합예방 등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축산 보수교육 시점은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허가자는 매년, 등록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시 50~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챙겨야 한다.

또한, 온라인교육 수강의 어려움이 있는 고령의 축산업 종사자는 지역축협 내에 온라인지원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지원반 이용방법은 축산업 종사자가 축협을 포함한 인근 교육기관에 문의 후 해당 교육기관 직원을 통해 교육 수강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ASF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학습센터(국번없이 1833-3917)를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 호남권 지역관리본부 현판식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1일 '호남권 지역관리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총 주관하는 실시본부는 대전 본청에 두고 호남지방통계청 등 5개지방청 단위에 지역관리본부를 설치해 해당지역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올 1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 조사(PC, 모바일)와 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전통주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받으세요'

### aT, GS25 스마트오더와 '우리술 담다' 이벤트 추진 전국 1만3000개 편의점 중 원하는 점포서 수령 가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즐기는 홈술과 혼술이 대세인 요즘, 100여 가지의 전통주를 발효 팔지 않고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후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에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판로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GS25 스마트오더와 손잡고 '우리술 담다'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로써 평소 전통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1일부터 GS25의 스마트오더 앱인 '너 팔'을 통해 전국 46곳의 우수 양조장에서 빚은 100여 가지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고, 고급 유리잔 세트가 포함된 오픈기념 특별패키지는 2,000개로 한정 판매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전국 1만3,000개의 GS25 편의점 중 원하는 점포에서 편리하게 전통주를 수령할 수 있

으며, 이달 말 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 용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오더는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로, 올해 4월부터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의 판매가 허용되면서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술, 혼술 등의 트렌드에 맞춰 올해 말까지 '우리술 담다'라는 전통주 소비활성화 캠페인을 펼쳐 전통주의 온·오프라인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T 신현근 식품수출이사는 "언택트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오더에 전통주를 얹어 우리 술의 판로확대에 나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전통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무인 출입통제시스템 완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례식장 출입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장례식장 입구에 안면인식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를 자동으로 하는 무인 출입통제 시스템인 '코비드 게이트'를 설치, 운영 중이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입한 출입통제 시스템은 안면 인식을 통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실시하는 최신 장비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온 증세를 보이면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시스템은 특히 별도의 온도계 측 없이 화상스크린을 통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신인 아닌 얼굴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김윤상 기자